

만주사변시기 중국 관영언론의 인식과 대응

-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

이재령*

1. 머리말
2. 난징국민정부 초기 직영언론의 현황
3. 만주사변 이후 《중앙일보》의 시국인식
4. 《중앙일보》의 대일방책
5. 맺음말

1. 머리말

1920년대 후반 난징국민정부(이하 난징정부로 약칭)는 북벌을 끝내고 쑨원(孫文)에 의해 제시된 훈정(訓政)으로 진입하였다. 이것은 혁명 시기에 당이 국가를 관리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의 통치체제로 최종 단계인 헌정을 준비하는 예비과정이었다. 그동안 군사적 물리력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군정에서 벗어나 국민당을 정점으로 각종 정책과 법령에 따라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지배체제

* 단국대학교 교수

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정책 홍보와 국민당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삼민주의를 사회 각 방면에 뿌리내리는데 선전수단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북벌이 끝난 후로도 장제스(蔣介石)의 군축에 반발한 옌시산(閻錫山), 평위상(馮玉祥), 광시계(廣西系) 등 지방 군벌세력과의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당내에서도 장제스의 개인권력 강화에 반대한 후한민(胡漢民), 왕징웨이(汪精衛) 등의 저항이 거세었다. 이러한 혼돈 양상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구조를 낳았고, 언론계에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당 중앙은 물론 지방당부와 군벌, 당내 파벌마다 제각기 신문잡지를 경쟁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시사 뉴스에 관한 국민들의 욕구가 고조되면서 민영언론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신보(申報)》·《대공보(大公報)》 등 상업일간지는 1920년대를 거치면서 재정적으로 건실해지고 여론의 영향력도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다.¹⁾ 이후 언론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내외 정치·경제·외교 등의 현안마다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민국일보(民國日報)》·《중앙일보(中央日報)》 등의 국민당 직영신문들도 관영언론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난징정부시기 언론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직영언론의 확대였다. 국민당은 북벌과정에서 자체 언론매체를 갖기 시작했는데 훈정에 들어서면서 《중앙일보》·중앙통신사·중앙방송국 등 독자적인 보도체계를 갖추었다. 1931년에는 당·정·군이 직접 운영하는 신문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하였다.²⁾ 이런 상황 속에서 난징정부 언론계는 외형상 당보, 정부

1) 난징정부시기 신문발행이 급증하여 1927년 628종, 1933년 867종, 1935년 1,736종으로 십여 년 만에 세 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발행지는 대부분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톈진(天津)·난징(南京)·우한(武漢) 등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편차가 컸고, 난징을 둘러싼 장쑤(江蘇)·저장(浙江)지역이 새로운 언론중심지로 부각되었다. 趙君豪, 『中國近代之報業』, 商務印書館, 1939. 98쪽. 이 시기의 언론계 현황은 이재령, 『현대중국과 지식인-난징국민정부의 교육언론정책과 지식인의 대응』, 신서원, 2003. 111~120쪽. 참조.

2) 許煥隆, 『中國現代新聞史簡便』, 河南人民出版社, 1988. 254쪽.

지, 군사지 등의 관영언론 이외에 국민당내 파벌과 공산당 및 기타 정파의 신문·잡지, 민영상업지, 외국신문 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언론매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1930년대 들어서 난징정부는 반장세력을 제거한 후 대내적으로 중앙집권 및 통일정책과 공산당 토벌에 주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불평등조약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1931년 9월 18일 만주(滿洲)에서 시작된 일본의 침략행위는 중국 국민의 위기감과 애국심을 자극하였고 언론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시켰다.³⁾ 또한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난상황은 아직까지 불완전한 난징정부의 정치 통합과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막 전국적인 통일정부를 세운 장제스는 만주사변 직후 군사력에 의한 신속한 대응보다 “선안내후양외(先安內後攘外)” 정책을 내세워 공산당 섬멸에 주력하였다. 당내의 다른 정파들도 일본 침략에 대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위상 변화를 꾀하였다. 언론계 역시 지난(濟南)사건, 만보산(萬寶山)사건, 대수해(大水害), 중촌(中村)사건 등의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보도, 논평하며 시국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만주사변 전후 중국신문들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훈정시기 중국 언론계는 물론, 국내 정세변화와 동북아 지역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만보산사건이나 만주사변 등 일제침략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졌다.⁴⁾ 특히 만주사변의 전주곡인 만보산사건에 관한 발생배경, 진행과정, 상호인식 및 언론논조 등을 정리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밝히거나 한국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3) 李在鎔, 「1930년대 초반 中國 民營言論의 時局認識 —《신보》《대공보》의 安內攘外論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第18輯 (중국근현대사학회, 2003. 6) 49쪽.

4) 중국 9·18역사박물관이 2000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九一八”研究』는 매년 만주사변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십 수편씩 발표하여 주요한 성과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검토하였다.⁵⁾ 또한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화베이(華北) 분리공작, 중일전쟁으로 이어진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한 난징정부의 대응과 언론동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그 가운데 만주사변시기 언론동향에 관해서는 《재생(再生)》·《신보》·《대공보》·《성경시보(盛京時報)》와 『독립평론(獨立評論)』 등의 관련기사들을 분석하여 난징정부와 각계각층의 시국인식 및 대응양상을 정리한 성과들이 있다.⁷⁾ 또한 1930년대 초반 《신보》와 《대공보》의 대일논조를 상호 비교하여 민영언론의 현실인식을 파악하거나,⁸⁾ 《대공보》와 《익세보(益世報)》의 관련사설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고,⁹⁾ 《신보》·《대공보》·《중앙일보》의 보도경향과 사론을 정리한 성과들이 있다. 이런 연구는 만주사변에 관한 주요 신문의 논조를 심층 분석하여 당시 시국상황과 각계 반응을 이해하는데 유효하고, 몇몇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여론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

-
- 5) 박영석, 『만보산사건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 이재령, 「난징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만보산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1집 (2004, 8) ; 손승희, 「만보산사건과 중국공산당」, 『동양사학연구』 제83집(2003, 6) ; ----, 「만보산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집 (2007, 10) ; ----,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집 (2009, 3).
- 6) 유신순 지음, 신승하 옮김,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 고려원, 1994 ; 沈予, 『日本大陸政策史(1868~194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 中國社會科學院中日歷史研究中心 編, 『九一八事變與近代中日關係-九一八事變7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참조.
- 7) 王毅, 「九一八事變後知識分子民主言說的特色 -以1930年代《再生》為中心」, 『社會科學論壇』, 2009, 8 ; 溫文芳, 袁飛, 「《申報》史料中的九一八事變考述」, 『蘭台世界』 23, 2011 ; 鄭大華, 「理性民族主義之一例: 九一八事變後的天津《大公報》」, 『浙江學刊』 4, 2009 ; 齊輝, 「《盛京時報》與九一八事變」, 『民國檔案』 3, 2009 ; 齊輝, 李晶晶, 「九一八」後《盛京時報》的宣傳策略」, 『新聞愛好者(上半月)』 9, 2009 ; 叶彤, 「九一八事變前《盛京時報》的報道策略」, 『新聞傳播』 9, 2009 ; 趙繼剛, 「試析胡適民族主義思想特點 -以1931至1937年間《獨立評論》對日言論為線索」, 『高等函授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2011.
- 8) 이 글에서는 「안내양외」의 순서와 방법을 검토하고, 안내의 실천과정으로서 초공전과 내정개혁에 관한 두 신문의 시각차를 분석하여 민영언론의 대응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재령, 위의 글(2003), 참조.
- 9) 全驚頡, 「九一八事變對報紙社論影響的研究-1927年-1937年《大公報》和《益世報》社論的社會學分析」, 南開大學研究生院, 碩士學位論文, 2010, 5.

다. 다만 연구대상과 방법이 민영언론으로 치우쳐 직영언론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고, 분석대상이 사실에 한정되어 신문마다 제각기 다른 편집방향과 보도형식, 기사내용 등을 분석하여 전체여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직영신문에 대한 평가가 국민당의 ‘목구멍과 혀’로 비유되어 독자적 주장이나 시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하수인, 대변인이란 일방적 해석뿐이다.¹⁰⁾

이 글은 만주사변시기 중국 언론계의 시국인식과 대응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동시기 국민당 중앙당보였던 《중앙일보》의 보도기사와 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장에서는 난징정부 초기 직영언론의 현황을 정리하고, 3, 4장에서는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와 사론 및 각종 칼럼을 토대로 직영언론의 시국인식과 대일방책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만주사변시기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이라 일컫는 일치단결, 질서 있는 항전준비, 국제연맹의 외교 간섭, 대일경제단교, 정신력 강화, 장기저항 등의 대일방침들이 직영언론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 인식되어 수용 또는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는지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1930년대 국민당의 혼정통치가 지녔던 본래 의미와 《중앙일보》를 통해 드러난 실체의 간극을 규명함으로써 난징정부에 대한 인식 폭을 넓힐 것이다.

2. 난징국민정부 초기 직영언론의 현황

쑨원 사후, 장제스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했지만 언론 홍보면에서 국민당내 다른 파벌보다 우세하지 않았다. 1차 국공합작시기 광저우(廣州)·상하이에서 발행된 《민국일보(民國日報)》는

10) 周朋暢, 「九一八事變後的報界輿論及其政治訴求—《申報》·《大公報》·《中央日報》三報社論比較研究—」, 華中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5.

전통적 당보로서 왕징웨이파와 시산회의파가 이미 장악하였고, 국민당 우파의 기관지로 1927년 3월 상하이에서 재발간되었다. 같은 시기에 공산당의 선전활동도 아주 뛰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는 “신문은 국민의 교사이고, 신문은 언론보도는 국민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 만약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 국가의 앞날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신문잡지에 관한 관리를 본격화하였다.¹¹⁾

북벌을 끝낸 국민당이 “본당의 언론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산당을 찬성하지 않으며 공산당과 및 최근 제3당과 몇몇 작은 조직들의 선전 도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언론통제방침을 밝히면서 직영언론의 역할을 강화하였다.¹²⁾ 당시 언론계에서 국민당이 발행하던 신문잡지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국민들이 불만한 신문잡지가 극히 드물다. 비교적 역량을 갖춘 신문·잡지는 대부분 상업성에 치우쳐 있고, 현재 우리에게 동정적이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¹³⁾면서 당보의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섰다.

1928년부터 국민당은 전국적으로 당보를 만들기 시작하여 북벌이 끝난 후 각 지역신문의 60~70%를 차지하였고, 중앙 및 지방의 당·정·군 기관이 앞 다투어 직영 신문잡지를 발행하였다. 난징정부의 직영언론은 크게 두 종류였는데 국민당 각급 당부의 선전부와 개인당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모두 중앙선전부의 비준을 받아 발간되었다.¹⁴⁾ 이밖에 군보(軍報)와 각 지역 실력자들이 발행한 신문들 중 국민당에 부속되어 있거나 지도를 받는 것이 많았다.

난징정부시기 국민당 중앙의 당보였던 《중앙일보》는 1926년 겨울 광

11) ‘蔣主席對記者之演辭’, 《中央日報》, 1929. 7. 11.

12) 何民魂, 「談談中國的新聞事業」, 《上海民國日報》, 1928. 10. 6.

13) 慎予, 「黨應確定新聞政策」, 《中央日報》, 1929. 3. 30.

14) 「修正指導黨報條例」,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第五輯 第1編, 文化(1), 江蘇古籍出版社, 1994(이하 『檔案資料』), 87쪽.

저우에서 창간되어 1927년 2월 한커우(漢口)로 옮겨 발행되었고, 이듬해 2월 다시 상하이로 이전하였다. 초기에 《중앙일보》는 국민당 좌파의 영향력이 강하여 장제스와 난징정부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우한 분공(分共)이후 공산당에 반대하였으며, 닝한(寧漢) 합작으로 발행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직영언론을 강화하려던 국민당 중앙이 5만 위안을 출자하여 상하이 《상보》의 자산을 구입하고, 동로군전적총지휘부 정치부 주임 판이즈(潘宜之)가 사장, 평쉐페이(彭學沛)가 총편집을 맡아 1928년 2월 1일 다시 발행되었다.¹⁵⁾ 이 때《중앙일보》의 편집방향은 “국민과 함께 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삼민주의의 선전”을 핵심으로 삼았다.¹⁶⁾ 그러나 편집진에 포함된 평쉐페이 등 국민당 좌파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음으로 장제스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다.

1928년 6월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가 당보의 발행, 관리, 재정 보조에 관한 〈당보설치조례〉·〈당보지도조례〉·〈당보보조조례〉 등을 제정, 공표하였는데 직영신문에 대한 국민당 중앙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¹⁷⁾ 또한 《중앙일보》의 발행지를 수도 난징으로 옮기는 조례가 제정되어 1929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외형상 당보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장제스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국민당은 직영언론의 관리를 위해 1931년 3월 24일 〈당보지도수정조례〉를 제정하고 발행주체에 따라 각급당부 선전부와 개인당원의 당보로 구분하여 모두 중앙선전부장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였다.¹⁸⁾ 이

15) 『中央日報』의 창간일과 관련하여 1928년 1월 1일(曾虛百, 『中國新聞史』, 臺北: 三民書局, 1966), 2월 1일(賴光臨, 『七十年中國報業史』, 臺北: 中央日報社, 1981), 2월 10일(穆逸群, 『中央日報的廿二年』,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87; 復旦大學新聞系 新聞史教研室 編, 『簡明中國新聞史』, 福建人民出版社, 1986) 등 세 가지 주장이 있다.

16) 何应钦은 발간문에서 “与民更始, 摈弃共产理论, 进一步宣传三民主义, 准备宣传方案, 打倒一切恶势力”을 《중앙일보》의 5대 임무로 제시했다. 周朋暢, 위의 글, 17쪽.

17) 方漢奇, 위의 책, 352쪽.

18) 『檔案資料』, 87~88쪽.

시기 《중앙일보》의 사장은 국민당 중앙선전부장인 예추창(葉楚儉)이 겸임하였고, 총편집은 연선위(嚴慎予), 부간편집은 왕핑링(王平陵)이 맡았다. 아울러 당내파벌로부터 고른 지지를 얻기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후한민·우즈훤이(吳稚暉)·다이저타오(戴季陶)·리스청(李石曾)·천부레이(陳布雷)·예추창·차이위안페이(蔡元培)·양신포어(楊杏佛)·쉬잉(石瑛)·샤오리즈(邵力子)·판공잔(潘公展)·뤄자룬(羅家倫)·푸스넨(傅斯年)·샤오위안충(邵元沖)·마인추(馬寅初) 등 주요 인사들을 총망라하였다.¹⁹⁾

《중앙일보》가 난징으로 이전한 후, 국민당 중앙과 각 지방 실력자 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중앙당보로서 언론방침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당의(黨義)를 명확히 밝히고 국책을 선양한다. 국민당 중앙을 옹호하며 반대파를 척결하여 당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근본을 옹호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반장세력을 제압하고, 국민당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공산당은 물론 계계(桂系), 개조파(改組派), 평위상, 연시산 등 당내 파벌을 제압하고 장제스의 지지여론을 구축하는데 충실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쑨원의 삼민주의와 지난행이(知難行易)론을 바탕으로 국민 교화에 힘썼고, 공산주의나 의회주의와 같은 다른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었다.²⁰⁾

훈정 실시이후 《중앙일보》는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졌고 자금도 충분했지만 만주사변 이전까지 다른 민영신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신문사의 규모나 인력, 설비가 빈약하여 경영면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춘 《신보》·《대공보》·《익세보》 등과 경쟁할 수 없었다. 제도적으로도 국민당의 언론관리가 민영언론의 통제를 애초에 목표로 삼았지만 직영신문인 《중앙일보》에 먼저 피해를 입혔다. 또한 국민당을

19) 穆逸群, 위의 책, 122~123쪽.

20) 이 때문에 국민당을 유일한 정치중심으로 삼아 훈정지배를 정립함으로써 장제스의 일인지배를 현실화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方漢奇, 위의 책, 356쪽.

위한 정치성 선전기사와 관련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시국 논평이란 언론 고유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엄격한 당보 편집방침과 보도제한 규정 등은 《중앙일보》의 취재범위와 보도내용 등을 경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일보》는 국민당의 선전도구로만 비춰져 구독률이 낮았고 독자와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침체되었던 《중앙일보》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응하여 《중앙일보》는 관영언론으로써 위상을 심분 활용하며 대일여론을 생성, 확산, 주도해 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문의 발행부수나 광고가 다른 민영신문을 압도하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1928년 2월 재발행 초기에 8천부에 불과했던 발행부수가 1930년대 초반 3만부 이상으로 늘어나 상업적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²¹⁾

1931년 11월 10일 국민당 제3기 중앙집행위원회 제2차 임시전체회의에서는 〈선전방략개선안〉과 〈중앙당부조직개선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국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전부 관할의 《중앙일보》와 도서관·인쇄소·방송국 등을 분리시켜 중앙상무위원회 직속으로 변경시킨 것이다.²²⁾ 이 조치는 관영언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장제스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다. 본래 국민당 중앙의 신문 사업은 중앙선전부에서 관할하였는데, 역대 부장들이 장제스의 직계 인물이 아닌 까닭에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중앙상무위원회 관할로 바꾼 것이다. 또한 외형상 직영언론의 독립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선전도구라는 어용색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었고,²³⁾ 직영언론의 재정 보조에

21) 方漢奇, 앞의 책, 356쪽.

22) 『檔案資料』政治(2), 306~311쪽.

23) 「各地黨報應切實整頓并避用民國日報名稱案」, 武偉, 「十年內戰時期國民黨新聞思想化政策初探」(復旦大學新聞界碩士論文, 1985), 37쪽. (方漢奇, 위의 책, 365쪽. 재인용).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는데도 유리하였다.²⁴⁾ 그러므로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 및 기타 직영언론의 관리체제가 독립성을 띠게 된 것은 국난상황에서 난징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합치된 결과였다.

여기에 힘입어 중앙일보사는 1932년 9월부터 석간인 《중앙야보(中央夜報)》를 창간하였고, 같은 해 11월 주간지인 《중앙시사주보》도 발간하였다.²⁵⁾ 당 중앙의 직영지로서 위상이 확고해진 《중앙일보》는 민영신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지원과 각종 취재편의를 제공받으며 신속히 발전하였다. 나중에는 난징·여산(廬山)·충칭(重慶)·창사(長沙)·쿤밍(昆明)·꾸이양(貴陽)·청두(成都)·푸지엔(福建)·안후이(安徽)·광시(廣西)·선양(瀋陽) 등 열 두 곳에서 발행되었다. 언론내용에 있어서 《중앙일보》와 중앙통신사를 비롯한 국민당의 직영언론은 반공을 전면에 내걸었고 모든 분야에 걸쳐 당치를 강조하였으며, 장제스의 개인권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는 대일 항전의 국가담론을 견인하고 항일여론의 흐름을 선도함으로써 직영언론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이다.

3. 만주사변 이후 《중앙일보》의 시국인식

가. 일치단결과 질서 있는 항전준비

만주사변 이후, 난징정부의 초기대응과 대일정책을 둘러싼 민영언론과 관영언론의 시각 차이는 컸다. 반장세력 및 공산당과 싸우고 있던

24) 당시 난징정부는 국민당 중앙과 省市直轄市の 당보 47 곳, 통신사 17 곳에 매년 180만원을 지출하였다. 「中央宣傳會新聞宣傳報告」, 「武漢日報等提出的以報養報案」, 武偉, 위의 글, 35~37쪽. (方漢奇, 앞의 책, 365쪽. 재인용).

25) 穆逸群, 위의 글, p.124.

난징정부는 일본군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중국 최대의 민영지인 《대공보》와 《신보》는 서로 다른 시국인식과 대응책을 내놓았다. 텐진에서 발행되던 《대공보》는 ‘양외(攘外)’를 위해 국내의 안정과 통일이 우선이란 ‘선안내론(先安內論)’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기항전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어 싸우도록 하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재앙을 안겨준 국민당을 질책하고, 구국의 방법을 탐구한다.”는 대일방침을 제시하였다.²⁶⁾

상하이에서 발행된 《신보》는 항일만이 국가존망의 근본책이라며 ‘선양외론(先攘外論)’을 주장하고, 항일구국을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민권을 제고한다. 청렴한 정부를 만든다. 민중을 무장시킨다. 실업계획을 실행한다. 교육을 발전시킨다. 재난지역을 부흥시킨다.”는 내용이였다.²⁷⁾

두 민영신문은 국내를 안정시킬 방안으로 초공전(剿共戰)을 핵심으로 삼았던 장제스와 달리 내정개혁, 민권보장, 농촌부흥 등을 중시하였다. 다만 《신보》는 안내를 양외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반면, 《대공보》는 초공의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한 것이 달랐다. 북벌이 끝난 뒤 내정개혁을 통해 부강한 국가 건설을 공동 목표로 삼았던 《대공보》와 《신보》는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선안내후양외’ 정책을 내건 난징정부와 협력 혹은 긴장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²⁸⁾

같은 시기 국민당 중앙 당보로서 관영언론을 주도한 《중앙일보》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정부와 당의 입장을 밝힐 책임이 있었다. 《중앙일보》의 첫 반응은 9월 20일자 신문에 “일본군 선양창춘(長春)·잉커우(營口) 점령”이란 제목으로 일본의 만주 침략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

26) 賈曉慧, 『《大公報》新論 -20世紀30年代《大公報》與中國現代化』, 天津人民出版社, 2002, 21~22쪽.

27) 宋軍, 『申報的興衰』,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138쪽.

28) 두 언론의 시국대응에 관해서는 이재령, 위의 글(2003), 참조.

트리는 심각한 파괴행위란 보도였다.²⁹⁾ 같은 지면에서 중국군은 중앙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일 영국대사 및 각국 대표들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같은 날짜의 사론은 “큰 재난이 코앞에 있고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인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면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죽을 결심으로 마지막 까지 분투하자”라는 항전 의지를 밝혔다.³⁰⁾ 긴급 소집된 국민당 중앙 집행위원회 임시상임위원회에서는 「각급당부에 알리는 글」을 통해 전국의 동지와 동포들에게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외부의 적을 물리치자”라고 국민당 중심의 일치단결을 강조하였다.³¹⁾

9월 21일자 신문은 당내 반장세력인 후한민을 비롯한 광둥파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면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내의 모든 정치세력이 정성으로 단결하여 국난을 이겨내자”라는 요지의 국민당 중집위 성명서를 게재하였다.³²⁾ 또한 일본군의 점령지 반환을 요구한 외교부장 왕정팅(王正廷)의 기자회견과 상하이·베이핑·한커우·전장(鎮江)·창사·타이위안(太原) 등 전국의 민중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전을 결의한 내용을 보도하였다.³³⁾ 9월 22일자 사론은 일제가 동북지방을 호시탐탐 노린지 삼십년이나 되었으며 근래 중촌사건 이후 침략행위가 노골화되었다면서 전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였다.³⁴⁾ 같은 날 국제연맹의 중국대표 스자오지(施肇基)가 일본군의 폭행에 맞서 국제사회의 조속한 간섭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였다.³⁵⁾

일본군이 만주지방을 침략하자 가장 먼저 조직적으로 반일여론을 일으킨 집단은 국민당의 각급당부였다. 9월 22일자 《중앙일보》는 난징·

29) ‘日軍占領瀋陽長春營口’, 《中央日報》, 1931. 9. 20.

30) 「以必死之決心作最後之奮鬥」, 《中央日報》, 1931. 9. 20.

31) ‘中執會臨時常會’, 《中央日報》, 1931. 9. 20.

32) ‘中央電粵請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1.

33) ‘外部二次嚴重抗議’, 《中央日報》, 1931. 9. 21 : ‘對日暴橫’, 《中央日報》, 1931. 9. 21.

34) 「精誠團結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2.

35) ‘施肇基向國聯提出」, 《中央日報》, 1931. 9. 22.

상하이·한커우와 장쑤성(江蘇省) 등 지방당부에서 보내온 대일항전 전보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자는 것이었고, 상하이시당부는 조속히 실지를 회복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항구를 보호하자는 적극적인 방안까지 내놓았다.³⁶⁾ 그 다음날도 난징시 국민당원들이 비상하고 열렬한 당원대회를 개최하여 반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집회에서 장제스·다이지타오 등은 전 국민의 정성 단결로 항일과 구제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고, 당원들도 당 중앙의 적극적인 대일작전 준비를 요청하였다.³⁷⁾

전국 각지에서 반일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민당 지방당부들은 “절개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구차한 삶은 살지 않겠다. …… 난징정부를 옹호하여 국난을 이겨내자”라고 주장하였다.³⁸⁾ 광둥성당부는 당 중앙에 “평화통일, 공산당 척결, 일본 반대”를 당면과제로 제시하였고, 후베이성당부는 “무력을 집중하여 항일을 준비하자”라고 주장하는 등 당 중심의 항전여론을 모아갔다.³⁹⁾ 이때부터 《중앙일보》는 국민당의 각종 기념식을 취재, 보도하면서 “(중화)민국과 본당은 동일한 생명으로, 당원은 마땅히 당을 구할 단결된 정신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여 당과 국가를 일체화시키며 당원들의 단결과 항일의지를 북돋았다.⁴⁰⁾ 이처럼 만주사변 직후 《중앙일보》는 지방당부의 항일여론을 전하는 형식으로 국민당 중앙이 대일항전을 주도하도록 여론몰이를 해나갔다. 이것은 국민당 중앙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항전시기 당과 직영언론을 하나로 묶어 국민여론을 유도, 생산, 선도하는 전형이었다.

만주사변을 맞아 가장 격렬하게 반일정서를 드러낸 집단은 교육계로 《중앙일보》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사변이 발생한 후 난징의 각급학교는

36) ‘日兵強占東省 全國奮起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1.

37) ‘悲壯熱烈之京市黨員大會 反日空氣異常緊張’, 《中央日報》, 1931. 9. 23.

38) ‘全國各地反日益熱’, 《中央日報》, 1931. 10. 2.

39) ‘和平統一剿共反日’, 《中央日報》, 1931. 10. 4.

40) ‘國難中本黨與黨員’, 《中央日報》, 1931. 10. 6.

곧바로 항일운동에 나섰다. 중앙대학, 금릉(金陵)대학, 문화학원, 삼민중학, 종영중학, 경관고등학교 등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에 분개하면서 “내쟁을 중단하고 일치하여 외부의 적을 몰아내자”라고 주장하였다.⁴¹⁾ 그 다음날 난징시내 학생들은 중등이상 학교에 반일구국단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시교육국도 〈반일선전방안〉을 서둘러 제정하였다.⁴²⁾ 중앙대학·금릉대학·문화학원 등을 비롯한 난징시교육계는 학생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무장구국을 준비하며 국제연맹의 공정한 처리를 호소하는 글을 연일 발표하였다.⁴³⁾ 또한 난징시내 각 학교의 항일구국회가 주축으로, 전국학계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이겨내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앙대·금릉대 등의 교직원들까지 참여하였고, 독일·영국 등 해외에서 유학중인 중국학생들은 의연금을 보내왔다.⁴⁴⁾ 10월로 접어들면서 중앙대에 의용군인 십인단(什人團)이 사십여 개 조직되고, 여학생 삼십여 명은 별도의 구호단을 편성하였다.⁴⁵⁾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학생의용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아래 진행되었다.⁴⁶⁾ 이후 《중앙일보》에 각급학교의 항일회 조직 및 반일운동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는데 “반드시 당 중앙의 규정을 준수하고,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질서 있는 항전’을 제기하였다.⁴⁷⁾

언론계도 만주사변이후 곧바로 반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9월 20일 대일외교후원회를 조직하여 국민당 난징시당부와 토론회를 개최

41) ‘日寇東省群情憤慨’, 《中央日報》, 1931. 9. 22.

42) ‘京市學生一致抗日’, 《中央日報》, 1931. 9. 23.

43) ‘首都教界熱烈反日’, 《中央日報》, 1931. 9. 24.

44) 《中央日報》, 1931. 9. 26; ‘首都各界抗日救國會 一致團結共紓國難’, 《中央日報》, 1931. 9. 27.

45) ‘中大義勇軍什人團’, 《中央日報》, 1931. 10. 1.

46) ‘本市學生義勇軍總檢閱’, 《中央日報》, 1931. 11. 9.

47) ‘學生救國運動 須遵守中央之規定’, 《中央日報》, 1931. 10. 9; ‘青年之救國責任’, 《中央日報》, 1931. 11. 29.

하고 일본의 침략으로 참혹하게 희생당한 동북지역민들을 애도하였다.⁴⁸⁾ 그 다음날 수도신문계 대일외교후원회는 “민중을 환기시켜 함께 국난을 이겨내자”라는 통신전문을 발표하고, 국제연맹에 “정의를 주장하며 세계평화가 보장되기 바란다.”라는 전보를 보냈다.⁴⁹⁾ 이후로도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계속되자 난징언론계는 일본외교후원회에 다시 중지 요청을 하였다. 10월 1일자 《중앙일보》 보도는 “정부당국이 공산당 토벌과 재난구제로 바쁜 틈새에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여 우리 영토를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신의를 포기하고 국제 권고를 따르지 않으며 저지른 폭행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정당 방위할 것이라고 밝혔다.⁵⁰⁾ 이러한 언론계의 초기대응은 국민당의 대일노선에 충실한 것으로 국민의 일치단결과 외교적 해결 등 비폭력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민당 중앙선전부가 수시로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방침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였다.⁵¹⁾

난징의 시민들도 각종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반일여론을 조성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9월 23일 육십만 명의 난징시민을 대표한 농민공인상인부녀자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일치단결하여 죽음으로서 반일에 나설 것을 맹세하는 반일구국대회를 개최하였다.⁵²⁾ 9월 22일자 《중앙일보》는 난징시정부의 장충다오(張忠道)가 “일본군의 침략으로 동북 각지의 동포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은 중국 역사상 큰 치욕”이라고 비분강개한 치사를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재하였다.⁵³⁾ 같은 날 부간(副刊)에는 왕핑링(王平陵)의 「일본이 먼저 세계평화를 깨뜨렸다」,

48) ‘爲東北各地被日軍慘殺的同胞誌哀’, 《中央日報》, 1931. 9. 21.

49) ‘首都新聞界對日外交後援 通電喚起民眾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2.

50) ‘首都新聞界對日外交後援會昨電請’, 《中央日報》, 1931. 10. 1.

51) ‘中宣部昨 招待新聞界’, 《中央日報》, 1931. 10. 2.

52) ‘今晨九時在公共體育場市舉行市民抗日救國大會’, 《中央日報》, 1931. 9. 23.

53) 《中央日報》, 1931. 9. 22.

딩런지에(丁人傑)의 「우리나라 국경의 개황」, 시카고대학 동아시아역사교수 맥네어(H. E. Macnair)의 『만주 -삼각형의 각축』 등 세 편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만주사변으로 관심이 고조된 국제적 책임논란, 중국영토의 현황, 만주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⁵⁴⁾ 그뿐 아니라 난징시의 상하농화청년구국단 등 수많은 단체들이 직능별로 반일회를 결성하고 항일을 선언한 후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대일전쟁에 나설 것을 외치며 “싸우다 죽어서 귀신이 될지언정 망국노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였다.⁵⁵⁾

9월 23일자 《중앙일보》는 네 바닥에 걸쳐 만주사변의 관련 기사와 사론을 게재하였다. 사론에서는 만주사변이 “우리나라의 커다란 치욕인데 어떻게 쉽게 넘어 가겠는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백골이 성을 이루고 중화의 귀신이 되도 좋다”면서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분노한 우리 국민이 동포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적과 생사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겨루자! 난폭한 침입자를 쫓아내자! 우리 땅을 돌려주라! 인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싸우자!”라고 항일의지를 북돋았다. 그리고 장쉐량(張學良)이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참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분발해서 생존을 구하자!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참을 수 있고, 저항하지 않겠는가?”라고 항전을 촉구하였다.⁵⁶⁾

같은 날 보도기사는 국민들의 일치단결을 강조한 국민당 중앙의 성명과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일본군 철병 결의안이 통과되고 만주에 조사단을 보내기로 한 소식을 함께 전하였다.⁵⁷⁾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국민당 당부와 학생·시민들이 전개한 반일규탄집회의 열기를 보도하고,

54) 「中央日報副刊 第225號」, 《中央日報》, 1931. 9. 22.

55) 「倭奴凌我 全國對日一致主戰」, 《中央日報》, 1931. 9. 23.

56) 「誓死反日一致爲政府後盾」, 《中央日報》, 1931. 9. 23.

57) 「國聯理事會主張公道」, 《中央日報》, 1931. 9. 23.

‘반일구국표어’를 신문지면 중앙에 돌출 게재하였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과 대만의 참혹한 실상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을 빌미로 재산을 몰수하고, 부녀자를 간음하며, 출가를 허용하지 않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다”라고 폭로하였다.⁵⁸⁾

사변 발생 직후, 《중앙일보》의 초기반응을 보면 구호성 표현으로 민족감정을 드러낸 글들이 많다. 예컨대 9월 20일자 사론은 “일본 제국주의자의 흉악한 얼굴과 야만적 성격이 이미 드러났고,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인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⁵⁹⁾ 9월 23일자 사론은 “국민들이여! 국가는 곧 망할 것이다! 우리 종족이 없어질 것이다! 동포가 죽어서 갈 곳이 없다!”⁶⁰⁾면서 비장감까지 드러냈다. 9월 24일자 사론은 “비록 우리 조국이 침입자에게 침략 당했지만 스스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재난이 임박하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적을 죽이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응전을 촉구하였다.⁶¹⁾ 이러한 《중앙일보》의 항일논조는 민영언론과 비교할 때 그 강도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사변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중앙일보》 지면에는 공동으로 국난을 극복하여 치욕을 씻어내자는 국내외 국민당 당부들의 성명서들이 계속 게재되었다.⁶²⁾ 그리고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자 교육부는 서둘러 지도에 나섰다.⁶³⁾ 위유런(于右任) 원장은 9월 28일

58) 항일표어의 내용은 첫째, 동삼성 접령은 일본제국주의자의 일관된 정책이다. 둘째,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최후의 결투를 준비하자. 셋째, 국가희망은 필부의 책임이다. 넷째, 영원히 일본제국주의자와 절교하자. 다섯째, 일본제국주의자는 전 인류의 공적이다. ……” 등 모두 열 가지로 일본을 중국의 적이자 인류의 공적이라면서 중국인의 단결과 항전을 강조하였다. ‘朝鮮臺灣 亡國慘痛錄’, 《中央日報》, 1931. 10. 1.

59) 「以必死之決心作最後之奮闘」, 《中央日報》, 1931. 9. 20.

60) 「誓死反日一致爲政府後盾」, 《中央日報》, 1931. 9. 23.

61) 「民族性之試驗」, 《中央日報》, 1931. 9. 24.

62) ‘對日暴行 全國軍民一致奮起’, 《중앙일보》, 1931. 9. 25 ; ‘全國將領通電抗日’, 《중앙일보》, 1931. 9. 26.

63) ‘教育部指導學生救國運動’, 《中央日報》, 1931. 9. 25.

연설에서 “전 국민이 모두 정성으로 단결하여 국가의 정당한 자위에 나서야 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국난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여 즉각적인 저항을 경계하였다.⁶⁴⁾ 국민당 중집위는 전국 학생들에게 “중앙의 통일된 지휘아래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군인의 수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질서 있는 항전 준비를 강조하였다.⁶⁵⁾ 장제스도 즉각적인 대일항전을 요구한 학생청원단을 직접 만나 “우선 학업에 충실하라.”는 요지로 훈화하였다.⁶⁶⁾ 9월 30일자 《중앙일보》는 “부저항과 자살”이란 장문의 칼럼을 게재하고 즉각 항전은 자살행위라면서 부저항노선을 공론화하였다.⁶⁷⁾ 또한 이 신문은 전국 각지의 항일 열기를 보도하면서 “절개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삶을 꺾이지 않겠다.”는 항전의지와 함께 “당 중앙을 옹호하여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취지의 ‘질서 있는 저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⁶⁸⁾

10월 이후로도 《중앙일보》는 연일 난징시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항일구국캠페인과 해외화교들의 항일여론을 전하였다.⁶⁹⁾ 이와 별도로 「전재(專載)」란 코너에서는 일본군의 만주 침략과정을 연재하여 중국민의 반일정서를 지속시켰다.⁷⁰⁾ 또한 매일 신문의 마지막 지면에는 〈항일구국〉이란 독자투고란을 두고 만주사변에 맞선 각계의 각오와 의견을 실었다. 여기에 게재된 글들은 대부분 난징정부의 대일정책을 지지하거나 격렬한 어조로 반일을 주장하지만 즉각 저항보다 당 중심의 일치단결과 철저한 항전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⁷¹⁾

64) ‘國難中政府與國民’, 《中央日報》, 1931. 9. 29.

65) ‘中央告誡全國學生’, 《中央日報》, 1931. 9. 29.

66) ‘蔣主席昨對滬學生請願團訓話’, 《中央日報》, 1931. 9. 30 ; ‘大夏學生昨赴中央黨部請願’, 《中央日報》, 1931. 10. 1.

67) 陳茹玄, 「抗日救國」, 《中央日報》, 1931. 9. 30.

68) ‘全國各地反日益烈熱’, 《中央日報》, 1931. 10. 1.

69) ‘全國民眾通電討日’, 《中央日報》, 1931. 10. 3.

70) ‘專載 暴日出兵 強占東北之經過’, 《中央日報》, 10. 3.

71) 胡明菊, 「抗日救國：救亡之道」, 《中央日報》, 1931. 10. 2 ; 一樵, 「抗日救國：抗日救國辦法二種」, 《中央日報》, 1931. 10. 3.

만주사변직후 《중앙일보》의 초기대응은 전 국민의 일치단결을 호소하며 국민당 중심의 질서 있는 항전 준비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격화되고 즉각 항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를 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신문은 국민당의 선안내후양의 정책에 충실하여 즉각적인 무력대응보다 질서 있는 장기항전을 주장하며 국민당의 훈정체제 유지에 더 치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국제연맹의 간섭 촉구

만주사변초기부터 《중앙일보》는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경제적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략을 무산시키려 했다. 9월 24일자 신문은 동북지역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보도하면서 그 잔혹성을 비난하였다. 아울러 외교부가 국제연맹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국제공법과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면서 조속한 철군과 점령지의 완전 반환을 주장했다고 전하였다. 또한 외교부가 장차 일본과 직접 교섭할 것이란 추측에 대해 부인하면서 국제연맹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며 일본이 국제적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라고 밝혔다.⁷²⁾ 그 다음날 《중앙일보》의 사론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서 두 가지 임무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외교방침의 확정이요, 둘째는 국내의 일치단결이었다. 전자는 국제연맹에 중재를 요청하여 일본군을 동북지역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사변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에 공리(公理)가 있다면, 국제사회에 정의가 있다면, 지독한 일본제국주의는 최종적으로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⁷³⁾ 이러한 시국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일보》는 국제연맹에 정의를 옹호할

72) ‘日軍獸性盡量發揮東三省同胞無唯類矣’, 《中央日報》, 1931. 9. 24.

73) 「如何赴此嚴重之國難」, 《中央日報》, 1931. 9. 25.

책임이 있다면서 일본군의 조속한 철군을 성사시키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반복 보도하였다.⁷⁴⁾

그런 만큼 《중앙일보》는 중일문제에 관한 서구 열강의 반응과 국제 동향에 매우 민감하였다. 예컨대 9월 25일자 신문은 “국제간 시비가 점차 분명해진다.”란 기사에서 미국이 만주사건의 모든 책임이 일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과 중국이 국제연맹의 결의를 받아들였고, 미국정부도 찬성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⁷⁵⁾ 그 다음날 신문도 미국과 국제연맹의 태도가 일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연맹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국·소련 등 세계여론은 하나같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인류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⁷⁶⁾

한편 9월 25일 국제연맹회의에서 일본대표 요시자와 겐키치(芳澤謙吉)가 일본군의 즉각 철수 및 만주조사단 파견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외교당국은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며 현재 유일한 방침은 동삼성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일본군에 의해 입은 생명 및 재산에 대한 손실을 완전히 배상받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일본에 속지 않도록 경고하였다.⁷⁷⁾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중국은 현대 국가조직이 없고 인민들이 배척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교활한 일본의 계획적인 허위 선전으로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간계를 국제연맹이 효율적으로 정지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에 의해 세계평화는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⁷⁸⁾

사변 초기 《중앙일보》의 지면에는 국제여론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

74) 이와 관련된 《中央日報》의 사론은 「國聯如何制裁日人暴行」(1931. 10. 16) ; 「日人強占東省一月矣國聯究將如何對暴日」(1931. 10. 18) ; 「國聯可容日狡詐乎」(1931. 10. 21) ; 「國聯應嚴厲執行撤兵決議」(1931. 10. 25) ; 「國聯應堅持撤兵協議」(1931. 11. 28) ; 「國聯與中國應銷日本在華特權」(1931. 11. 22) 등이 있다.

75) 「國際間是非漸明美國責日滿事負全責」, 《中央日報》, 1931. 9. 25.

76) 「暴日蹂躪東省國事美與國聯態度一致」, 《中央日報》, 1931. 9. 27.

77) 「國聯限日本即日撤兵」, 《中央日報》, 1931. 9. 28.

78) 「國聯勿誓爲死日人所欺騙」, 《中央日報》, 1931. 10. 15.

난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연맹이 일본군의 신속한 철수를 독촉한다는 기사가 연속 게재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침략행위는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국제연맹에 관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적극적 호소와 깊은 우려, 실망 등이 병존하였다.⁷⁹⁾ 9월 27일자 신문기사는 “일본이 만주 전체를 영구히 점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의 조정을 거절하면서 직접 교섭을 견지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정부는 직접 교섭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제연맹은 과연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가”라고 국제연맹의 해결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⁸⁰⁾

국제연맹의 폐회를 앞둔 9월 29일, 브리앙(M. Briand) 의장이 최대한 노력을 다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시하였고, 영국대표는 중일 양국의 직접교섭을 촉구하였으며, 일본대표도 철수시기를 보증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는 “일본의 폭행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 국제연맹의 위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하였다.⁸¹⁾ 10월 1일 국제연맹이 휴회에 들어가자 중국대표 스자오지는 일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면서 책임 및 배상에 관해 명확히 결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⁸²⁾

만주사변이 발생한 후 국제연맹은 수차례에 걸쳐 일본군의 철수를 촉구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았다.⁸³⁾ 이에 대해 《중앙일보》 “일본군이 계속 폭행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제연맹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와 적대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제 공리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

79) 「誓死反日一致爲政府後盾」, 《中央日報》, 1931. 9. 23.

80) 「日本決定永佔南北滿」, 《中央日報》, 1931. 9. 27.

81) 「國聯威信安在 對日本暴行竟無辦法」, 《中央日報》, 1931. 9. 30.

82) 「國聯休會兩星期」, 《中央日報》, 1931. 10. 2.

83) 「日本斯國聯 未遵議撤軍」, 《中央日報》, 1931. 10. 3.

하며 국제연맹의 위상문제와 연계시켜 제재를 촉구하였다.⁸⁴⁾

시간이 흐를수록 만주에서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각 기관을 감시하며 점령지역을 확대하여 치안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국제연맹은 일본군의 철병을 회의적으로 보고 중립국의 실황보고를 요청하였다.⁸⁵⁾ 일본의 철군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연맹은 전문가들을 선양에 보내 조사하였다.⁸⁶⁾ 이에 맞서 일본이 대규모 군함을 동원하여 장강유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이자 스자오지는 국제연맹에 항의하였다.⁸⁷⁾ 국제연맹은 10월 14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일본군이 기한 내 철수하지 않은 문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금주(錦州) 폭격으로 수많은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일본의 침략행위가 오히려 심해지자 국제연맹은 하루 앞당겨 13일 개최를 결정했고, 중일 양국에 대해 그 전까지 정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⁸⁸⁾

10월 13일 국제연맹이 개최되자 스자오지가 일본의 폭행을 통렬히 비판하며 직접교섭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단교를 반박하면서 철병을 거절하였다. 또한 주프랑스 미국대사가 옵서버 자격으로 국제연맹에 출석하자 일본은 반대성명을 내고 퇴출을 주장하였다.⁸⁹⁾ 이 시기에 《중앙일보》는 “국제연맹은 어떻게 일본의 폭행을 제재할 것인가?”, “국제연맹은 앞으로 폭악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사론을 연이어 게재하고 사변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제연맹의 결의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⁹⁰⁾

10월 20일 국제연맹 이사회는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후 무기

84) 「日人蔑視國聯之誓鐵證」, 《中央日報》 1931. 10. 17.

85) 「國聯懷疑日本撤兵 請中立國報告實況」, 《中央日報》, 1931. 10. 4.

86) 「日本是否依議撤軍 國聯派專員赴瀋調查」, 《中央日報》, 1931. 10. 6.

87) 「施肇基照會國聯 抗議日本擴大軍事」, 《中央日報》, 1931. 10. 7.

88) 《中央日報》, 1931. 10. 8~10. 13.

89) 《中央日報》, 1931. 10. 14~10. 18.

90) 「國聯如何制裁日本暴行?」, 《中央日報》, 1931. 10. 16 ; 「日人強占東省已一月矣 國聯究將如何對暴日?」, 《中央日報》, 1931. 10. 18.

휴회에 들어갔다. 의장이 행정원에 제출한 〈중일문제해결결의안〉은 11월 16일까지 일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것과 중일양국의 항구적인 분쟁조정기관을 조직할 것 등이었다. 이제 일본은 3주 이내 만주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해야만 되었고, 일본이 제출한 대안은 전체회의에서 부결되었다.⁹¹⁾ 이 결의안이 통과된 후 《중앙일보》는 곧바로 내부 단결과 평화통일을 내세우며 차분하게 대일논조를 유지하였다. 신문보도도 항전 준비나 만주지역에 관한 내용은 축소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일상 소식을 많이 다루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연맹의 결의안까지 위반하면서 침략행위를 계속 확대하였고 여기에 맞서 마잔산(馬占山)군이 독자적으로 일본군에 저항하였다.⁹²⁾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내 항일여론이 다시 거세어졌는데 무엇보다 일본이 획책하고 있던 만주분리계획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앙일보》 역시 국제적 간섭에도 불구하고 철군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연맹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감이 커지면서 비판기사가 많아졌다.⁹³⁾ 이 신문은 “그동안 국제연맹에 희망을 건 국민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외부의 힘을 의존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예가 없으며, 국가의 멸망을 막을 수도 없다. 이미 재난이 발생했으니 외부의 협박과 무력 앞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여 독자생존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국제연맹의 역할을 기대하고 즉각 저항을 주장하지 않았던 《중앙일보》는 더 이상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에 대한 직접 비판을 강화하여 “일군이 동북에 침입하여 저지른 잔인한 행동과 교활한 수단은 이미 드러났다. …… 관찰에

91) ‘國聯行政院大會 通過中日問題決議案’, 《中央日報》, 1931. 10. 26.

92) ‘日軍增援猛撲 馬占山誓死盡守土責’, 《中央日報》, 1931. 11. 8 ; ‘馬占山軍繼續自衛中 國聯對日將執必要之行動’, 《中央日報》, 1931. 11. 9 ; ‘馬占山部苦戰自衛’, 《中央日報》, 1931. 11. 10.

93) ‘國聯能負荷其使命否乎’(1931. 10. 19) ; ‘國聯忘却撤兵協議耶’(1931. 11. 23) ; ‘國聯之最終試驗’(1932. 3. 5) ; ‘國聯調查團毋爲日方片面宣傳所蒙蔽’(1932. 3. 8)

의하면 일본은 위협적 방법과 회유책 등 지독한 계획으로 욕망을 무제한 만족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⁹⁴⁾ 또한 일본군이 무력에 의해 동북을 점령한 사실은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그 교활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각종 방법을 이용해서 국제적 시선을 피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 감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⁹⁵⁾ 더욱이 이 신문은 “일본민족은 속 좁고, 궁리를 잘하고, 음험하고, 악랄하고, 수단이 비열하고, 행동이 잔인하다.”면서 민족성까지 문제 삼았다.⁹⁶⁾

만주사변을 맞아 《중앙일보》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준엄하게 비판하고,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직영언론의 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앙일보》의 초기 대응은 중국인의 일치단결과 항일의지를 강조하며 국제연맹의 간섭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내를 안정시키고 국제적 지지와 동정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역할과 권능은 기대를 벗어났고, 《중앙일보》의 논조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자국민들의 항일운동을 억제시키는 이중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이 엄존한 상황에서 《중앙일보》의 대일보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당은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직시하였고, 항일여론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국외교에 도움이 되며 일본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⁹⁷⁾ 따라서 만주사변이후 국민당은 《중앙일보》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고, 당 중심의 일치단결을 역설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만주에 집중시켜 국제적 간섭을 끌어내는데 언론과 외교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94) 「如何攻破日本之毒計」, 《中央日報》, 1931. 10. 2.

95) 「日政府之狂囂」, 《中央日報》, 1931. 10. 29.

96) 「日軍暴行與日本民族性」, 《中央日報》, 1932. 2. 19.

97)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4. 《중앙일보》의 대일방책

가. 경제단교와 정신무장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이 폭발하여 중일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 난징정부의 대일태도는 외교수단을 동원한 부저항노선으로, 국민들의 즉각 항전 요구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국제연맹에 호소하는 외교방식뿐만 아니라 항일문제에 대해 민중의 결의를 모아 정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 방식은 ‘대일경제단교’와 ‘국민의 정신력 강화’처럼 비폭력적 반군사적 수단에 의해 일제에 맞서는 것이었다.

《중앙일보》가 가장 중요한 대일방책으로 삼았던 경제단교는 중국내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일본과의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치된 행동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함께할 때 효과가 있으며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폭력 수단으로 인식되었다.⁹⁸⁾ 이 때문에 9월 22일 저장성 국민당집행위원회 제100차 회의에서 〈대일경제절교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항주시 학생반일구국선전조직장정〉 등이 통과된 사실을 즉각 보도하여 대일경제단교를 부각시켰다.⁹⁹⁾ 9월 26일자 신문에는 수도 난징의 각계대표담화회에서 〈반일선전구제방침〉이 채택되었는데 일본상품 판매자를 조사하여 반혁명죄로 다스릴 만큼 강력한 경제단교가 추진될 것임을 알렸다.¹⁰⁰⁾

일본상품배척운동은 만주사변 직전에 발생한 만보산사건과 조선의 화교배척운동을 계기로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 후 일본의 대중국무역이 크게 감소되어 8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

98)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99) 「浙省澈底履行 對日經濟絕交」, 《中央日報》, 1931. 9. 24.

100) 「首都各界談話會 擬定反日宣傳具體方針」, 《中央日報》, 1931. 9. 26.

었으며, 앞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¹⁰¹⁾ 9월 30일자 사론은 당면한 두 가지 절박한 업무로 대외선전을 확대하여 국제적 동정을 얻는 것과 대일경제단교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단교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내 일본의 경제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본의 모든 실력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것만이 민족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고, 국가가 치욕으로부터 벗어나 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²⁾

또한 《중앙일보》 부간의 시사만평에 게재된 「문명인의 동물성」이란 글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마땅히 깊어져야 될 중대한 책임으로 대일경제단교의 실행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망하는 것, 싸울 수 없는데 싸워서 망하는 것,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싸워서 망하는 것, 전쟁 위협에 타협하여 싸우지 않고 망하는 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철저한 전쟁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였다.¹⁰³⁾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대일전략은 모든 국민을 각성시켜 일치단결하고, 국내정치를 정돈하며, 대일경제단교와 군사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었다.

10월 들어서 경제단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수도각계항일구국회 총회는 정기적으로 난징 시내의 각 상점에 있는 일본상품을 모두 점검, 배척할 것을 결정하고 곧바로 시행하였다. 반일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국 잡화수출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잡화공업의 발전도 있지만 중국에 있던 일본인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¹⁰⁴⁾ 수도각계항일구국회는 10월 3일부터 일본상품 총등기제를 시행하여 등기일로부터 일본상품의 매매 혹은 유통을 금지시

101) ‘抵制仇貨中 日對華貿易大感’, 《中央日報》, 1931. 9. 28.

102)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103) 「時事漫評：文明人的獸性」, 《中央日報》, 1931. 10. 2.

104) ‘全市日貨總檢査’, 《中央日報》, 1931. 10. 1 ; ‘反日高潮中 日對華雜貨輸出將瀕絕境」, 《中央日報》, 1931. 10. 2.

켰으며 대일경제단교의 범위도 확정짓고 각성시마다 항일구국회를 조직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전달하였다.¹⁰⁵⁾ 이후 대일경제단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일본상품배척운동이 갈수록 뜨거워졌다.¹⁰⁶⁾

이 운동에 큰 기대를 걸었던 《중앙일보》는 경제단교를 통해 경제전쟁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무력전쟁과 같아서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¹⁰⁷⁾ 그 이유로 일본의 중국침략 배경이 단순히 일본부르주아지와 군벌 이익의 발동이라기보다 세계경제의 위기로 일본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입어 해외시장이 절실히 필요했고, 무력으로 중국을 침략하기 전부터 일본의 중국경제 침략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상품배척을 핵심방안으로 삼은 경제단교는 일본경제에 큰 충격을 가하여 일본의 예기를 꺾을 수 있고, 일본인들에게 “중국인은 결코 치욕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다고 보았다.¹⁰⁸⁾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항일구국이란, 무력으로 전쟁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전쟁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를 깨뜨리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경제단교의 효과를 강조하였다.¹⁰⁹⁾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진행된 간디의 불복종운동을 소개하며 경제단교의 성공사례로 제시하였다. 간디가 직접 면포를 찌는 방식으로 인도인을 환기시켜 영국제품을 배척함으로써 영국의 수출산업이 부진에 빠졌고, 정치적으로 영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런 효과는 최첨단 무기보다 훨씬

105) ‘抵抗暴日各地紛組義勇軍’, 《中央日報》, 1931. 10. 4. 중앙일보는 난징시의 일본상품 등기결과를 가지로 따져보면 약 800만 위안 내외로 전국 동포의 총동원과 일본상품저지운동이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도하였다. ‘全同胞總動員 抵制仇貨大成功’, 《中央日報》, 1931. 10. 4.

106) ‘對日經濟絕交’, 《中央日報》, 1931. 10. 7.

107) ‘如何攻破日本之毒計’, 《中央日報》, 1931. 10. 2.

108)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109) ‘日人已感排貨痛苦矣’, 《中央日報》, 1931. 10. 12.

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신문은 “연설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침묵만 실천”하는 부저항 방식인 경제단교를 선호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집단적인 항일시위로 난징정부를 압박하던 학생·지식인들의 ‘즉각 항전’론에 대한 반대나 다름없었다. 이후 《중앙일보》는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고, 줄을 서서 청원하지 않아도 되며, 연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직 인쇄심을 키우고, 동지들의 단결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¹⁰⁾

비폭력적 항일구국운동으로 시작된 일본제품배척운동은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대일경제단교 후 중국에서 운항 중이던 일본 운선은 대부분 정지되었고,¹¹¹⁾ 특히 상하이의 일본 운선 손실액이 매월 수십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¹¹²⁾ 장강 유역의 일본 운선도 모두 폐업했는데 모회사인 일청공사가 업무를 중지하면서 중국인 노동자 이천여 명을 해고시켰다. 이처럼 중국인의 손실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느끼는 경제단교의 고통은 훨씬 컸다.¹¹³⁾ 그뿐 아니라 일본은 중국을 경공업제품의 거대한 덩핑시장으로 삼았는데 일본제품배척운동이 일어나자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어쩔 수 없이 대체시장을 찾게 되면서 서구 열강들과 경제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경제단교의 효력이 군사전쟁과 똑같고, 민족독립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국가의 상업무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본의 침략명분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난징정부는 일본제품배척운동을 공식적인 대일정책으로 삼지 않았고, 일본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자 이 운동을 억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경제단교는 1930년대 들어서 중국사회에 팽배한 배일, 주전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에 대한 비판을

110) 「經濟斷交之借鑒 請觀甘地領導下之抵貨運動」, 《中央日報》, 1931. 10. 3.

111) 「全國民衆對日經濟絕交後 在華日輪多已先後停航」, 《中央日報》, 1931. 10. 2.

112) 「滬日輪 每月損失恒數十萬」, 《中央日報》, 1931. 10. 23.

113) 「自由的言論；再論日人所感排貨苦痛」, 《中央日報》, 1931. 10. 25.

완화시키려는 현실적 고려로 볼 수 있다.

본래 목적이 어찌되었든 대일경제단교는 중국민의 호응 속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11월 들어서 《중앙일보》의 논조는 감정적 항일언론 대신 경제단교에 관한 보도기사와 사론이 자주 등장하였다. 11월 8일자 「자유의 언론」이란 고정칼럼에 게재된 천다바이(陳大白)의 글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본과 경제를 단교하자”란 제목으로 일본상품배척운동의 성과를 상세히 알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⁴⁾ 사변초기 《중앙일보》는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질서 있는 항전준비를 강조하며, 국제연맹의 간섭에 의해 철군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국제연맹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경제단교와 장기항전으로 언론의 초점이 모아진 것이다.

이 무렵 《중앙일보》의 대일정책은 경제단교 이외에 국민들의 정신역량 강화도 중시하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소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국난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져 가슴 속 비분만 가득한 채 실망하니 곤란한 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중국 고유의 정신력 강화를 주장하였다.¹¹⁵⁾

9월 24일자 신문에 보도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용군교육강령〉에 따르면 고급중학 이상의 학교에 일률적으로 청년의용군을 조직하고, 초·중 이하의 학교에 어린이의용군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 행동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를 희생하여 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며, 영원히 충성스럽고 용감한 국민이 된다.

둘째, 명령에 복종하고 기율을 엄수한다.

셋째, 자치습관을 기르고 단체생활을 실행한다.

114) 「自由的言論：一致對日經濟絕交」, 《中央日報》, 1931. 11. 8.

115) 「抗日步日驟亟應全國一致」, 《中央日報》, 1931. 9. 26.

넷째, 수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공중을 위해 활동한다.
다섯째, 일본상품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쑨원이 제시한 충효·인·애·신·의·화평 등의 고유도덕을 강령으로 삼아 학생들의 사상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정신무장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조회를 거행하고 큰 목소리로 애국심을 고양하는 열 가지 구호를 제창하였다.¹¹⁶⁾ 또한 교육부는 학생구국운동을 적극 지도, 관리하였다. 국립 각 대학 및 각성시 교육청과 교육국에 전보를 보내 “지금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야 한다.”면서 각급학교의 구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지켜야 될 규정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학생들이 각종 집회를 참여할 때 교직원이 책임지고 인솔하며,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체육과정에 주의하며, 학생은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허용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모든 행동은 당 중앙 및 정부의 법규에 따르도록 했다.¹¹⁷⁾

또한 이 신문은 “확고한 의지로 민족정신을 발휘하여 민족의 능력과 도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중국인이 강인한 민족정신과 함께 삼민주의로 무장할 것을 역설하였다.¹¹⁸⁾ 여기서 말한 민족정신이란 일종의 민족의식으로, 지리·역사·혈통·종교·언어·문화 등을 기초로 민족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동의 심리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전쟁과

116) 구호내용은 “하나, 영원히 충성스럽고 용감한 국민이 된다. 둘, 중국의 國恥를 씻을 것을 맹세한다. 셋, 중국의 영토를 회복한다. 넷, 중국민족을 진흥시킨다.”는 것과 삼민주의와 중화민국을 각각 만세 삼창하였다. ‘全國各校一律組織義勇軍’, 《中央日報》, 1931. 9. 25.

117) ‘教育部 指導學生救國運動’, 《中央日報》, 1931. 9. 25 ; ‘全國各學校 一律組學生義勇軍’, 《中央日報》1931. 9. 26.

118) 「國難中之國慶」, 《中央日報》, 1931. 10. 10.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우리 4억 동포들이 과거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와신상담(臥薪嘗膽),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민족 정신으로 국난에 맞서 복수할 것”을 호소하였다.¹¹⁹⁾

《중앙일보》는 중국의 민족정신이야말로 적과 싸우는데 가장 필요하며, 민족정신의 결정체인 삼민주의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일본의 이데올로기는 호전주의와 군국주의로, 천황제 아래 원로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내각의 힘은 약하고, 군벌이 독단적이며, 그 위에 다시 재벌이 있어 일반국민은 숨쉬기조차 어렵다면서 중국과 일본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 같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부원천이 제한되어 있고 제도도 불량하며, 정부가 무력 침략을 일삼기 때문에 전국적인 불경기는 필연적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삼민주의가 정신무장의 핵심이자 비폭력에 의한 장기항전의 원천으로 반드시 호전주의를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였다.¹²⁰⁾

국난시기 《중앙일보》가 민족정신의 계승, 발전을 강조한 것은 반일정서로 격양된 사회분위기를 질서 있는 항전준비와 장기저항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였다.¹²¹⁾ 그런데 《중앙일보》가 언급한 민족정신이란 삼민주의의 숭배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현실과 유리되었다. 중국의 삼민주의가 일본의 호전주의와 군국주의를 이긴다는 주장도 관념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신문에서 언급된 “이데올로기의 승리”란 주장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민심을 결집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중앙일보》에서 강조한 대일경제단교와 정신역량의 강화는 자력대응이자 애국주의의 발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

119) 「不屈不撓之民族精神」, 《中央日報》, 1931. 10. 1.

120) 「以主義戰勝暴日」, 《中央日報》, 1931. 12. 7.

121) 蕭功秦는 “민족주의의 감정과 이념은 정치 공동체의 응집력과 공식을 유지한 극히 희귀한 ‘천연’ 적 정치자원이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본국과 본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 문화, 용기와 지혜를 호소해야만 그는 민중의 민족감정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蕭功秦, 『與情致浪漫主義告別』, 湖北教育出版社, 2001. 219쪽.

과를 기대하기보다 항일여론을 질서 있게 분출시키려는 수단이었다.

나. 장기저항

11월 초 《중앙일보》는 만주문제가 철근기한까지 정한 국제연맹의 결의로 일단락되면서 일상적인 보도편집체제로 돌아왔다. 물론 동북지역의 일본군 동향이나 국내외의 반응, 국제연맹의 움직임 등은 계속 주시했지만 일반 뉴스도 많았다. 만주사변 직전까지 심각한 현안이던 수재민 구제와 공산당의 척결, 당내 정치적 통일 등과 관련된 기사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국민당 중앙은 일본의 만주 침략에도 불구하고 당내 단결과 공산세력의 제거를 우선 과제로 중시하였다. 장제스는 11월 2일 국민당 기념식에서 “당 중앙은 내외의 공격 중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단결을 추구하고, 당장을 준수하며, 약법을 옹호하여 평화통일을 관철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¹²²⁾

만주사변이래 《중앙일보》의 언론보도 중 가장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제기한 대응논리는 ‘장기저항’으로 학생, 지식인들이 청원 및 시위를 통해 주장한 ‘즉시항전’과 반대된 것이었다. 이 신문은 “즉각적인 항일이 실제 효과는 없고 일시적 흥분만 초래한다. 적이 이 약점을 가지고 계속 침략하면 비판할 수도 없다”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해 지금 이 시각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치욕을 되돌릴 수 있고 성공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빠른 효과보다 장기저항을 주장하였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의 상하가 결심하여 …… 모두 하나의 작업을 시작하는데 중앙부터 민국 20년에서 민국 30년까지 국난을 맞아 실제로 할 수 있는 각종 계획아래 이행방법을 찾고, 각 단위별로 계획하여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¹²³⁾ 그리고 “민기(民氣)가 있고 실력도

122) ‘黨內團結的先決問題’, 《中央日報》, 1931. 11. 5.

있으니 십년 교훈으로 우리 민족은 지극히 어려운 국운에서 자강을 구할 수 있다”면서 십년 이상의 장기저항을 염두에 두고 중국 국민의 인내를 요구하였다.¹²⁴⁾ 이 무렵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매주 몇 시간의 과외 강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제국주의 중국침략사’에 관한 것으로, 장기저항에 따른 항전의지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였다.¹²⁵⁾

《중앙일보》는 “지금 적을 죽이지 못하면 언젠가 죽일 것이고, 최단 시간에 죽일 것이다. 지금 바로 칼을 들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준비로 칼을 들 수 있고,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철저한 항전준비를 강조하였다. 또한 적을 죽이려는 소망과 당장 적을 죽이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일 수 없다면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적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적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끈질긴 저항을 주장하였다.¹²⁶⁾

그런데 국민당의 장기저항이란 ‘즉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저항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일본의 침입에 맞서 중국이 양보할 수 없을 때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다.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이 발발하여 19로군과 일본의 해군육전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장제스는 전국의 장사(將士)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쟁이 일단 시작되었으면 항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혀 즉시 저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중앙일보》도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재는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고, 희생하고, 최후의 생존을 찾아야 한다.”라고 즉시항전을 주장하였다.¹²⁷⁾ 다음 날, 《중앙일보》 사론은 “우리가 저항하

123) 「響應確定國難時期之建議」, 《中央日報》, 1931. 9. 29.

124) 「對外宣傳與經濟絕交」, 《中央日報》, 1931. 9. 30.

125) 「日本侵略中國史」, 《中央日報》, 1931. 11. 7.

126) 「民族性之試驗」, 《中央日報》, 1931. 9. 24.

127) 「讀蔣先生告全國將士書」, 《中央日報》, 1932. 1. 31.

고 희생하며 폭력과 투쟁해야만 우리 영토를 완전히 유지할 수 있고 국가의 최고 인격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면서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¹²⁸⁾ 그렇지만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무력저항이 국민당의 본래 전략이 아니었으므로 송호(淞滬)정전협정 이후 《중앙일보》지면에는 장기저항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다.

이 신문은 장기저항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일본과 중국에 네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째, 일본은 단기전에 유리하고 중국은 장기전에 유리한데 국제환경이 중국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고 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곧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강해지고 일본은 내부 모순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이었다. 셋째, 중국은 오래 동안 버틸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럴만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단일국가인 반면 일본은 제국주의국가로, 그들에게 자원을 빼앗기고 있는 피식민지의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²⁹⁾ 아울러 이 신문은 중국의 장기저항이 국제사회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첫째, 도덕적인 면에서 평화조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인류의 도덕표준을 유지하고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을 폭로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일본이 중국에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이익을 파괴하였고, 이 때문에 양자관계가 점차 긴장되면서 결국 구미열강이 중국을 도와 원흉을 처벌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으로 1차 대전 이후 전 세계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중일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라마다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세계 평화를 파괴한 일본의 죄는 더욱 뚜렷해진다. 즉 중국의 장기저항은 적의 악행을 보여주고, 전 세계의 군축여론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항일과정에서 중국이 상당한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

128) 「由抵抗犧牲達到伸張公理正義」, 《中央日報》, 1932. 2. 1.

129) 「長期抵抗對於敵我兩方之影響」, 《中央日報》, 1932. 3. 2.

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¹³⁰⁾

《중앙일보》가 주장한 장기저항론은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주목한 것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1930년대 초 중국 내부는 군사현대화와 정치통합의 초기단계로, 실질적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쟁동원 능력의 향상에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렇지만 만주사변시기《중앙일보》가 내세운 장기저항론은 부저항노선에 대한 비판 여론을 벗어나려는 방편이자 소극적 대응으로 비춰졌다.

만주사변이 발발한지 십여 일 후, 《중앙일보》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일치단결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 방식은 첫째, 정성으로 단결을 촉진하고, 최대한 단결을 추구하여 전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둘째, 조직을 엄밀히 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단체가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전국의 항일운동을 정부의 통일적 지휘 감독아래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 항일운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성심성의껏 단결하여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¹³¹⁾ 이러한 전략이 실현되려면, 정부와 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량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 제시된 통합방식은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결여된 채 “당 중앙과 국민의 일치단결”이란 구호만 반복될 뿐이었다.

《중앙일보》에서 언급한 일치단결의 실제 대상은 두 부류로 첫째, 즉시 항일을 요구한 민중들이었다. 만주사변 후 국민들은 난징정부에 대해 “외교가 약하다. 일본과 절교해야 한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신속히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등 여러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

130) 「長期抵抗對於國際關係之影響」, 《中央日報》, 1932. 3. 6.

131) 「抗戰御侮之正當途徑」, 《中央日報》, 1931. 9. 29.

제로는 국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절교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난시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신문은 “국난시기의 주장은 일치할수록 좋고 역량은 단결할수록 좋다”면서 “수많은 역량을 하나의 공통된 주장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하였다.¹³²⁾ 그리고 “남녀노소와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통일된 지휘 아래 공동으로 분투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의 항전 주도과 장기항전의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¹³³⁾

또 하나의 통합대상은 당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난징정부 수립이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아 국난을 맞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내에서 “행동과 목적이 상반되어 정부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국가 권력도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분열된 정치역량으로는 “본당(국민당)이 국가의 지위를 이용하기 힘들고, 당치 원칙의 법적통치 근간이 흔들려 국가가 공산당을 토벌하는 것과 외침을 막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¹³⁴⁾ 그리고 당내 반대세력의 존재와 계속된 혼란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현대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조직은 완벽하지 않다.” “중국은 무질서하고 내전이 계속되어 무정부상태에 빠졌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신문은 중국인을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모든 일의 출발점이 통일과 단결에 있으며, 그 전제 조건은 내부 투쟁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³⁵⁾ 그런데 내부 투쟁을 제거하려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정파간 분쟁을 중지하여 단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과 정부의 투쟁을 없애 완전히 일

132) 「全國一致共赴國難」, 《中央日報》, 1932. 2. 17.

133) 「長期奮鬥已開始矣」, 《中央日報》, 1932. 2. 21.

134) 「團結與救亡」, 《中央日報》, 1931. 10. 24.

135) 「中國內爭之總結束」, 《中央日報》, 1932. 2. 28.

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일치항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³⁶⁾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가 꾸준히 제기한 장기저항론은 앞에서 살펴본 일치단결론과 함께 대일방책의 핵심으로 사실상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 논리는 국민당 중앙이 적대적 정치세력과 대응할 때 사용한 잠재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난시기 사회적 통합과 당내 정치통일을 위해 내세운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5. 맺음말

북벌을 마친 국민당은 훈정을 준비하면서 ‘이당치국’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직영언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1928년부터 국민당은 직영언론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당 중앙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 조례들을 제정하였다. 1931년 3월에는 국민당의 각급당부 및 개인당원이 발행하는 모든 당보에 대해 중앙선전부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민당 좌파의 영향력이 컸던 《중앙일보》를 재정비하여 당 중앙의 당보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신문은 1931년 초까지 직영언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해 9월 18일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민당 중앙의 당보로서 국난시기 대일방침을 선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국가의 장기 담론을 생산, 전파하는데 주도적이었다. 1930년대 일제 침략에 맞서 당과 국민 사이의 여론전달매체로서 국민당 위주의 항일언론을 생산, 보급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훈정시기 관영언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36) 「從此次國難所得來之義教訓」, 《中央日報》, 1932. 4. 23.

만주사변직후, 《중앙일보》는 국민당 각급당부 및 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항일열기를 연일 보도하면서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국민당 중심의 항전준비로 여론 흐름을 몰아갔다. 이에 대해 민영언론은 장제스의 “국내를 먼저 안정시킨다.”라는 정책에 따른 부저항노선이라고 비판하면서 ‘즉시 항전’을 주장하며 항일여론을 선도하였다.

사변 초기에 《중앙일보》는 군사대응보다 외교·경제적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략을 무산시키려 했다. 따라서 이 신문은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외교방침의 확정을 시급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국내정치세력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국제연맹의 간섭에 의해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데 언론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역할이나 권능은 기대 밖이었고, 이에 대한 실망감이 신문기사와 사론을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었다. 외교수단에 의한 해결이 요원해지면서 《중앙일보》는 대일경제 단교와 정신력 강화, 장기저항 등에 국민 여론을 모았다.

《중앙일보》는 사변 직후 ‘선안내후양외’와 같이 당장 민심을 잃은 정책을 직접 홍보하지 않았다. 일제의 침략행위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민의 일치단결을 도모하고, 당 중심의 질서 있는 항전준비를 주장하며 국제연맹의 외교 간섭 등 비폭력 수단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시 중국사회에 만연된 대일주전 여론을 약화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난징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중앙일보》의 항일관련 기사나 사설은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들이 많아 민영언론에 못지않은 반일정서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학생·청년들의 구국운동을 억제하며 국민당의 지도, 관리를 강조한 ‘질서 있는 항전준비’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은 난징정부의 시국대책을 바탕으로 항일여론에 호응하려는 관영언론의 현실적 한계였다. 그렇지만 국민당은 대일 전략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직시하였다. 국내외의 반일, 항전여론을 최대한 고조시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중국 외교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질서 있는 항일여론의 조성과 확산은 《중양일보》의 몫이었지만 그 내용이나 실체에 있어 ‘즉시 항전’이란 일반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한편 《중양일보》는 외교수단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직접 항일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일경제단교와 정신력 강화를 중요한 항전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수입된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국민운동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31년 7월의 만보산사건과 조선의 화교배척운동에 뒤이어 만주사변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군사력에 의한 즉각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중양일보》 지면에 대일경제단교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이 신문은 항일구국에 있어서 무력대응만이 전부가 아니며 국민경제전쟁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일본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실제로 경제단교의 가시적 성과들도 나타났는데 특히 운송업 및 경공업분야에서 일본경제의 타격이 컸다.

이 신문은 경제단교 이외에 국민들의 정신역량 강화를 중시하였다. 중국 고유의 민족정신이야말로 일본과 싸우는데 가장 필요하며 승리의 관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경제단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의 애국심을 배경삼아 자력 이행이 가능한 항전방식으로, 팽배해진 반국민당 여론을 완화시키고 항일여론을 주도하던 민영언론에 맞설 수 있는 대응책이기도 했다. 따라서 직영언론을 대표한 《중양일보》는 장기항전을 국가담론으로 내걸고, 일치단결과 항전준비, 경제단교와 정신무장을 일체화시켜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만한 난징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역량과 가시적 노력이 부족하였고, 대일경제단교만이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의 항전열기를 분출시키는 돌파구가 되었다.

만주사변시기 《중양일보》는 관영신문이란 제한된 틀 안에서 일치단

결과 질서 있는 항전, 국제연맹의 외교적 간섭, 대일경제단교와 국민의 정신무장 등 비폭력적 방법에 의한 장기저항을 제기하였다. 이런 한계 때문에 항일여론의 형성과정에서 관영언론의 영향력은 미약하였고, 오히려 여론을 왜곡, 호도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문사까지 공격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제스의 부저항노선을 옹호한 어용언론이란 평가도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완화시키고, 즉각 항전을 요구하던 민영언론의 압박을 해소하는 등 당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이 난징정부의 정통성에 상처를 입혔지만 장기저항은 이후 확대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맞선 ‘장제스 중심의 대일항전’이란 큰 틀을 만들어냈다. 1937년 7·7사변 이후 장기항전은 《중앙일보》를 비롯한 관영신문과 중국 전체의 항전 전략으로 굳어져 장제스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는 기저로 작용하였고, 국내 각 세력이 연합하여 항일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7. 6. 28, 심사수정일: 2017. 8. 16, 게재확정일: 2017.8.21.]

주제어 : 만주사변, 중일전쟁, 중앙일보, 관영언론, 항일여론, 반일운동, 국제연맹, 경제단교, 장기저항

<ABSTRACT>

Perceptions and Reactions of China's Government Running Medias during the period of Manchurian Incident

– Focused on *Zhongyangribao* –

Lee, Jae-Ryoung

This paper is of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he articles and the editorials of *Zhongyangribao*, the party newspaper of Guomindang(People's party) in the Political Tutelage period, in order to clarify the situational recognition and the reactional aspects of China's government-running media during the period of the Manchurian Incident which was the prelude of the Sino-Japanese War. With the success of the Northern Exped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olitical Tutelage, Guomindang reformed *Zhongyangribao*, which was originally the inclination of left, and strengthen the function as its central party newspaper. By the early 1931, this newspaper could not overcome its limit of a party controlled media; but the Japanese empire's invasion of Manchuria provided a turning points to *Zhongyangribao* as a party newspaper. It started to propagate and expand anti-Japanese policies and dominantly produced and spreaded anti-Japanese strategies. Throughout this process *Zhongyangribao* rapidly grew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and took up the core of the directly-controlled media.

In the early phase of the Manchurian Incident, *Zhongyangribao* domestically appealed for nationwide solidarity, prepared death for anti-Japanese volition, and criticized the invasion of Japanese empire in fierce wordings. At the same time the newspaper took the bilateral position suppressing the national independent movement of students and youths and asserting the 'Resistance in Order' under Guomindang'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This bilaterality showed the fanciless limit of a government-running media which had to correspond to the anti-Japanese public opinion only within Nanjing government's resolutions. Internationally, *Zhongyangribao* took the strategy of squeezing Japanese army's retreat by the inter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 but there were not enough political · military · diplomatic abilities and efforts of

Nanjing government. Yet, the economic severance against Japan turned into a notable success and became a breakthrough for exploding the nation's resisting energy.

Since *Zhongyangribao* was the central party newspaper, its reports could not diverge from the nonresistant pace and its editorials were lack of practical resolution. Therefore, the influence of government-running media in the process of forming anti-Japanese public opinion was very weak. Rather, the newspaper company got attacked by the public with the critique of distorting and misleading public opinions. *Zhongyangribao* within the limit as a directly-controlled newspaper asserted the nonviolent long-term resistance, such as the nationwide solidarity, the resistance in order, the diplomatic inter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economic severance against Japan, and the national spiritual armament. Although it might be devaluated as a passive action under nonresistance pace, it took an important role for relieving the national critique and resistance against Guomindang's Japan policies, and for resolving the private medias' pressure asserting the immediate fighting.

Although Guomindang's nonresistance pace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hurted Nanjing government's legitimacy, Japanese empire's constant aggression formulated the format of the anti-Japanese war with Chiang Kai-shek in the core. Such a logic of *Zhongyangribao* became the strategy for anti-Japanese war not only of government-running media but also of China as a whole, and acted as the foundation for Chiang Kai-shek's leadership. And then, as the Marco Polo Bridge Incident of 1937 enlarged the Sino-Japanese war into full-scale, the same logic became a key for the solidarity of all domestic groups to fight against Japan.

Keywords : Manchurian Incident, the Sino-Japanese war, *Zhongyangribao*, government-running media, anti-Japanese public opinion, the League of Nations, the economic severance against Japan, long-term resistance